

David Howard 박사, Joshua-Ruth, 세션 3, 소개 3부

© 2024 데이비드 하워드와 테드 힐데브란트

룻기를 통해 여호수아를 가르친 Dr. David Howard입니다. 이것은 세션 3, 여호수아서 소개, 3부, 문학적 맥락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는 여호수아서의 문학적 맥락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맥락, 지리적 맥락에 대해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서는 실제 시간과 공간,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과 장소와 사람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문학적 구성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쓴 글입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말한 의도는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서를 문학적 맥락, 즉 그것이 나오는 구약의 장소, 즉 정경의 장소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구분이 바로 여기에 있고 그 이면의 논리는 이 책들을 때로 모세서라고 부르는데, 이는 모세가 이 책들의 주요 저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끝 부분에서 죽으므로 성경의 주요 부분을 논리적으로 구분합니다. 그 후, 개신교 전통에서 우리는 보통 역사서인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 심지어 역대기 전체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용어를 완전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 역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수아서의 줄거리가 민수기, 출애굽기, 창세기의 줄거리를 따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편의상 용어이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인데, 열왕기하로 가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끌려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았던 400년 정도, 400년 이상, 어쩌면 800년 내지 900년이 될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들을 이전 선지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과 같은 의미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사야와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선지자는 아닙니다.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이 책들의 저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건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이들을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의 머리가 되는 책이고, 이 땅의 생명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문헌을 충분히 읽어보면 이와는 조금 다른 작문 이론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몇 세기 전부터 20세기까지 널리 퍼진 주요 이론 중 하나는 창세기의 줄거리가 실제로 신명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에서 끝났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우리는 Hexateuch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경은 다섯을 의미하는 펜타(penta)라는 단어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다섯 권의 책에서는 오각형을 5면체로 생각합니다. 육각형은 6면의 기하학적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육경은 구약의 처음 여섯 권의 책이 될 것입니다. 학자들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모세는 오경의 저자가 아니지만 훨씬 나중에 누군가가 이에 대해 쓰고 있었고 이 모든 책을 관통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끝났습니다. 조슈아. 그리고 이것에는 특정한 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는 약속의 성취와 스토리라인이 여기에서 끝나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경의 움직임은 항상 미래 지향적인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후 수십 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의 후손은 더 이상 그 땅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나머지 부분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움직임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경의 모든 책 끝에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그들은 이집트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엑소더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책, 다섯 권의 책은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가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는 일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수세기가 지난 후에 약속이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땅에 있게 되었으며, 삶은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가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되돌아본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인생은 좋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대부분의 다른 책들에서 찾을 수 없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책이 거꾸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오경이 모세의 펜에서 나왔거나 오경의 대부분이 모세의 펜에서 나왔다는 전통적인 이해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1943년 독일 학자 마틴 노스(Martin Noth)가 다른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명기적 역사(Deuteronomistic History)라는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Noth는 종결 지점이 바로 여기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 모든 책의 머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신명기에는 그 땅에서의 삶, 모세의 생애 말기 지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을 내다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처음으로 표현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에서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는 열왕기하가 수백년 후인 561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여호야킨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으로 끝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노스(Martin Noth)는 이 모든 큰 책들의 전체 자료가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포로 기간 동안 기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일부는 더 일찍 기록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모두 신명기 역사라는 큰 구성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Noth가 주장한 것의 대부분이 타당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언급된 순종과 하나님의 약속 등에 관한 많은 것들이 이 책들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 중 일부는 신명기의 경고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스레드와 주제의 통일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제의 통일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저자의 통일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모두 망명 중에 쓰여졌다는 Note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나는 오경이 본질적으로 모자이크라는 전통적인 관점을 확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전체적인 목적은 여호수아서의 맥락을 경첩된 책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는 모두 경첩이 달린 책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연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한 그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대대로, 특히 지난 40년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신실하셨는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광야 등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명기의 과거 모습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제 나는 현장을 떠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것이며 여기에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일부는 40년 전에 주어진 율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책 이름인 신명기(Deuteronomy)는 제2법칙을 의미하는 Deutero와 Nomos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율법은 원래 시내산에서 1세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모세가 이대에게 말하는 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뒤를 돌아보면서도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조슈아도 마찬가지다. 뒤돌아 보면 이것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사로잡혀가는 열왕기하 말까지 이스라엘이 살았던 첫 번째 책으로 앞을 내다보는 방식도 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여기 이 책들을 휩쓸면서 앞뒤를 살펴보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룻기를 통해 여호수아를 가르친 Dr. David Howard입니다. 이것은 세션 3, 여호수아서 소개, 3부, 문학적 맥락입니다.